

82. 너희들의 순종의 발걸음 & 그것들의 영원한 의미.

2015.05.18 – 예수님께서 콜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제발, 나는 너의 인내가 필요해. 너의 순종으로 인해 영혼들이 다다르고 있어.

(콜레어) 오늘밤 주님의 소중한 신부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 그래, 그들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발걸음, 모든 의도가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그들은 나에게 그들자신을 100% 맡겼어. 그들의 순종은 단순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워. 나머지 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리저리 달리는 동안 나의 신부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순종으로 신성해져. 그들은 그들의 발과 그들이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심지어 그들의 뒤에 신성한 향기를 남겨.

만약 내가 그들의 순종의 가치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너희들은 진주와 보석이 박힌 황금 빛 샌들을 신은 아름답고 완벽한 발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달콤한 종소리가 울려퍼질 거야. 그리고 그들이 발을 들 때 백합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내. 빛의 발광이 그 백합들 주변을 둘러싸 그 빛을 발산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일이 어려울 수록 더 멋진 소리가 나고 더 많은 꽃과 과일들이 피어나. 그리고 그들이 매일 그 낡아진 길을 여행할때, 길의 양쪽에 과일나무들이 기쁨으로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가장 지치고 전쟁으로 찢긴 영혼들을 지탱해주는 맛있는 과일을 만들 거야.

이것이 나를 향한 그들의 순종의 의미이고, 이 사랑의 꽃들은 지구의 꽃들처럼 절대로 시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숲이 가득찰때까지 계속 늘어날 거야. 그 꽃들은 꺾을 수 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들의 향기를 내내 발산해. 그리고 나는 그들의 동산에 가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무들과 꽃에 가지치기를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만큼 미각도 즐겁게 하는 열매의 덩굴나무가 올라타 정교하게 매달린 가지들이 있는 이 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너희들이 보다시피 순종은 작은 일이 아니야. 그것은 그 순간의 열매를 맺을뿐만 아니라 영원한 열매도 맺어. 그리고 나는 동산으로 와서 이 열매들을 따고 치유가 필요한 여러곳으로 보내. 보다시피 이 열매에 은혜들이 베풀어져. 왜냐하면 그 열매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열매를 맺게하고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와.

오, 이것은 너희들 모두와 나누고 싶은 신비들이야! 너희들의 끝없이 놀라게 할 정말 많은 신비들과 여러가지 것들! 천국에서 하는 일과 영적인 삶은 끝이 없어. 알다시피 이러한 순종은 일종의 천국의 분위기를 조성해. 진정으로 나의 왕국이 오고 나의 뜻이 이루어진거야. 오 그래, 그리고 악마들은 이 영적 동산들을 싫어하고 끊임없이 그 동산들을 파괴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악마들은 주로 이기심.. 자기 의지를 사용해. 미각의 즐거움은 이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상에서의 성취 통한 이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기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동산을 끈적한 벌레와 곤충으로 가득차게 하여 그 해충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어. 쾌락의 벌레들은 꽃들의 즐거움을 공격해. 자기 집착의 작은 곤충들은 꽃들을 보기에 흥하고 갈색이 될때까지 갉아먹어. 자만심의 곰팡이는 뿌리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꽃들이 더 이상 생산하고 아랫부분을 유지할 수 없을때까지 자라.

그래, 다른 모든 해충들을 볼 수 있지만 뿌리에 있는 곰팡이는 동산에서 보이지 않아. 자만함으로 맺힌 열매와 꽃들은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아. 자만함이 동산에 들어오면 끝내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그것이 항상 첫번째 공격의 길이야. 자만심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해.

하지만 다시 순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난 주에 많은 나의 신부들이 순종하였어. 그래, 진정으로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위해 세상과 쓸데없는 모든 것들에서 돌아섰어.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가정안에서의 치유, 나와 함께 더 깊어지는 마음,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들을. 관계들은 이타심과 사랑의 환경속에서 꽃을 피웠어.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 너희들은 세상과의 접촉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를 얼마나 더 얻었는지?

그러니 만약 너희들이 이 때에 유익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세상의 미디어와 그 미디어에서 과장된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적들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야. 이것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파괴를 거두고 있어.

나의 신부들아, 만약 너희들이 나를 위해 거룩해지고 싶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해.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받아들여야해. 너희들은 이러한 결정들의 열매를 너희들이 천국에 오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지금 너희들을 격려해. 나는 나의 신부들이 세상의 모든 잡초를 쳐내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거룩한 길을 계속 걸도록 너희들에게 한 마음의 은혜를 전해줘.